

# 耽羅精神探究

玄平孝外人

## 目次

- |            |            |
|------------|------------|
| 一. 序       | 三. 耽羅精神 分析 |
| 二. 耽羅精神 概觀 | 四. 結 및 餘言  |

## 一. 序

여기 <耽羅>란 제주도에서 사람이 살아온 이래, 오늘날까지의 濟州를 時空적으로 代稱하는 이름으로 쓴다. 사전에 따르면, <精神>은 'mind' (知力) · 'soul·sprit' (靈魂) · 'will·intention' (意志) · 'motive' (動機) · 'mentality' (心性) · 'genius' (天稟資質·思潮·特質) 등의 汎稱인데,<sup>1)</sup> <耽羅精神>이란 濟州民의 時空的, 集團的, 社会的 性格이라 規定해 본다.

社会的 性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社会学·心理学·人類学의 여러 분야에서 接近이 必要하

1) 韓英出版社; *Webster's English - Korean Dictionary*, 1976, P.1701.

다. 어느 측면에서의 접근이든 性格究明은 不可視의 心意現象이므로 그 작업이 힘들다. 또한 社会学·心理学·人類学·民俗学·歴史学 등 諸科学의 各側面에서 研究와 그 研究에 따른 總和가 필요하다. 더구나 濟州民의 伝來的, 共時的 特質究明은 韓國人의 性格究明이 전제돼야 하며, 그 터전 위에 제주도적 도민의 社会的 性格을 抽出해야 하는 게 당연한 단계이다. 그런데도 과연 韓國人의 社会的 性格, 韓國人의 民族性이 要約해서 무엇이나를 물을 때 한마디로 답변할 만한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 있지 못하므로, 따라서 濟州民의 性格究明에도 문제 접근의 한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濟州民의 社会的 性格 연구는 더구나 濟州 연구의 결론이다. 그런데도 各分野의 濟州 연구는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다. 이 또한 作業의 障礙가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濟州文化의 類型化作業 (patterning)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그 傍証資料 역시 필요한 만큼 마련돼 있지 않다.

社会的 性格에 대한 연구는 大別하면 文化類型 (cultural patterns)에 관한 연구, 國民性 (national character) 연구, 社会的 性格 (social character) 및 基本的 퍼스내리티 (basic personality)에 관한 연구로 나뉘 볼 수 있다.<sup>2)</sup> 이제까지 이런 類의 연구는 外國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up>3)</sup> 한국에서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은 近者 高調一路에 놓였으며, 가끔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다가 하면, 몇몇 論著가 나타나고 있다.<sup>4)</sup>

2) 崔在錫; 「韓國人의 社会的 性格」, 開文社, 1979, P.17.

3) •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1950.

• G. Gorer; *The Americans; A Study in National Character*. 1948.

•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1946.

• E. Fromm; *Escape from Freedom*. 1941.

• K. Young;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946.

4) 主要著書만을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 現代教育叢書, 1977.

• 崔在錫; 「韓國人의 社会的 性格」, 開文社, 1965.

• 高麗大學校 行動科學研究所編; 「韓國人의 主體性」,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8.

•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韓國學」, 玄岩社, 1977.

• 金泳漢; 「韓國社會學」, 法文社, 1978.

• 申一澈; 「主體性의 危機」, 修文書館, 1977.

• 李東植; 「韓國人의 主體性과 道」, 一志社, 1978.

• 金炯孝; 「韓國思想散考」, 一志社, 1976.

• 韓國哲學會; 「哲學思想의 韓國的 照明」, 一志社, 1974.

• 朴鍾鴻; 「韓國의 思想의 方向」, 博英社, 1972.

• 金泰吉; 「小說文學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值觀」, 一志社, 1977.

• 金鵬九外 5人; 「韓國人과 文學思想」, 一潮閣, 1977.

• 金斗憲; 「우리 民族의 活路」, 博英社, 1976.

• 黃元九; 「韓國思想의 傳統」, 博英社, 1976.

• 李永鎭; 「韓國人의 價值觀」, 一志社, 1975.

耽羅精神, 곧 濟州民의 伝来的, 社会的 性格 考究의 목적은 濟州民의 主体性 確立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國際的 觀光地로 急激한 變貌를 거듭하고 있는 濟州는 主人意識定立이 火急, 重且大한 時点에 놓여 있다. 可視的, 物量的인 것의 激變은 超速度的인메다, 그 急變 事象이 반드시 바람직한가, 試行錯誤는 없는가, 그냥 두어두는 게 외당한 것임에도 改變만이 發展이라는 그릇된 發想, 實行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現狀不變更原則이 文化財 保存의 第一義의 基本原則임에도 이를 誤導하고 있지는 않는가, 伝来的 道民의식을 過去 否定的 眼目으로만 規定 하려는 愚劣은 道民의식에 도사려 앉아 있지 않는가, -이런 모든 것들의 源泉은 우선 道民정신의 肯定的 定立의 바탕 위에서 이룩돼야 한다는 前提 아래, 恒久히 志向해야 할 바 道民정신의 確立과 이에 더불어 道民의 主体性 確立을 꾸준히 試圖, 定立할 필요를 切感한다.

主体性이란 自我가 自我의 主人公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 또는 生活態度 속에 담긴 良의 德性, 아니면 自我가 自我의 主人公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狀況 속에서 인정되는 良의 價值라 볼 수 있다.<sup>5)</sup>

民族의 主体性은 그 민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主体性에 근거하며, 그 總和로서 이야기되 듯, 한 지역민의 集團의 主体性도 마찬가지다. 濟州民 개개인의 性格 내지 主体性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 또한 至難한 課題다. 우리는 伝来的 濟州住民의 主體성도 문제려니와 現代人으로서의 時代的 主体性 또한 의면할 수 없다.

於此彼 主体性的 핵심은 自主性 및 自己同一性(identity) 인 것이다. 남과 다른 自我, 남들과 判別되는 集團의 性格(institutional uniqueness)이 곧 제주도적 性格이요, 그 集團이 民族의 性格 곧 主体性인 것이다.

濟州民의 潛在의 能力을 개발하고, 道民의 存在樣式 곧 制度的 樣式(institutional character)을 구명해야 한다. 중국에는 自己實現의 豫言(self-fulfilling prophecy)을 마련하러 남이다. 主体性이란 主人意識이요, 獨立이요, 解放이요, 選擇이요, 부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主体性的 形成過程은 依存에서 獨立, 奴隸에서 主人으로, 奴隸에서 解放으로 強요당함이 아니고, 자유로운 選擇으로 넘어가는 과정<sup>6)</sup>이기 때문에 自己實現의 豫言 일 수 있다.

民族性을 말하든, 島民性을 말하든, 否定的 側面을 擴大視함은 日本植民政策의 遺産이요, 奴隸根性的의 產物이요, 碍膈之物을 배제하지 못한 自卑意識 내지 敗北意識의 產物이다. 말할 것도 없이 濟州民의 意識에는 肯定的 側面이 있는 반면, 否定的 側面도 共存한다. 여기서는 肯定的 側面에 力點을 두어 論述을 전개하려 한다.

耽羅精神探究란 주제를 두고 우선 可能한 대로 玄平孝教授를 그 研究責任者로 하고, 金宗業·金

5) 高麗大學校 行動科學研究所; 「韓國人의 主體性」, 高麗大學校 出版部, 1978, P.2.

6) 李東植; 「韓國人의 主體性과 道」, 一志社, 1978, P.10.

仁濟·玄容駿·姜景禧·金榮教·高性俊·梁重海 教授 등이 제각기 歷史的 側面, 倫理的 價值觀 側面, 民俗的 側面, 風土的 側面, 民謠的 側面, 自衛的 側面, 文化的 側面 等 7個分野로 나누고 10餘회에 이르는 協의회를 거치면서 그 研究方法와 豫想되는 結論을 討論하면서 論議를 거듭했다. 거듭할 때마다 이 作業의 어려움과 限界를 다함께 突感했다. 接연적은 느낌을 무릅쓰고 1979年 10月 19日 濟州市內 KAL호텔에서 濟州道の 도움을 얻고 眞摯한 세미나를 우선 가졌었다.

이 研究는 將來할 도민 정신의 定立을 위한 前哨의 作業에 머문다는 점을 自認한다. 우선 그 發表要旨<sup>7)</sup>을 여기 간추리고 公約數를 정리할까 한다. 本稿의 綜合·整理·執筆責은 研究陣의 合意에 따라 金榮教이 담당했다.

## 二. 耽羅精神 概觀

### 1.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제주도민이 이 섬에 살아서 이래 오늘날까지 강인성과 勤勉性을 麗鮮代를 통하여 알아 보려 한다. 太子 末老의 入麗朝로 시작된 中央이 제주에 대한 干涉과 統治는 汚吏들의 橫行을 招來하게 되었는데, 일례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牧民官에게 男 15才 이상 되는 자는 한 해에 콩 한 섬을 바쳤었고, 衙吏 數百名은 자기 한 해에 말 한 필을 바쳤었다는 史實만으로도 立証이 된다.<sup>8)</sup> 또한 耽羅國이 崩壞된 12세기초 이후 朝鮮朝末까지 8세기 동안, 그 牧民官은 약 550명에 이르렀었는데 그 거의가 收奪과 压制의 탐관오리였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毅宗·明宗·神宗代의 民亂과 蜂起는 도민들의 自己保存을 위한 처절한 鬪爭이었다. 더우기 惡辣한 元의 牧胡들은 도내 反蒙勢力을 누르기 위해서 倭賊들과 提携, 忠惠王·忠正王·恭愍王 年間에는 島沿岸에 倭賊들이 猖獗하기도 하였다.

鮮代에 들어 併合되면서부터 中央朝廷에서는 宣慰官도 派遣하면서 善政으로 懷柔하였지만, 土豪의 弄奸과 汚吏行脚은 여전했고, 더구나 地狹質瘠한 곳에 麗凶民 流入으로 民生은 加壓됐는데 被压과 賦役 등의 어려움에 시달려서 出陸者가 갑자기 늘어서 世宗과 宣祖 사이에는 도민의 과반수 인구인 38,000이나 격감하였다.<sup>9)</sup> 그러자 出船記로 照点도 하고 韓本土人과의 通婚禁止 등의 制度로써 出陸을 禁止했고, 이 단절과 더불어 도민들은 지배 계급에 의해 奴隸로 희생되기도 했다.

7) 濟州大學 耽羅研究所; 「耽羅精神 探究 세미나 主題發表要旨」, (孔版), 泰和印刷社, 1979.

8) 濟州道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耽羅紀年, 1976, P.356; “旧俗凡男年十五以上者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亦各歲貢馬一匹副使判官受而分之故守宰雖貧皆致富”

9) 濟州民이 韓本土로 流離逃亡한 주된 原因을 살펴보면, ①食糧難 ②軍役義務의 過重 ③倭敵들의 侵犯에 대한 不安 ④土豪의 壓力 및 官吏의 橫暴 ⑤身貢의 過重 ⑥朝廷으로부터의 虐待 등을 들 수 있다.

風氣 또한 무심하여 光海·肅宗·英祖·正祖·高宗於間에는 荒凶으로 餓死者가 続出하였고<sup>10)</sup> 百種이 杜絶되어 도토리 열매로 延命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儉絶한 生活을 밀바탕으로 하여 強忍不敗와 勤儉節約의 精神은 굳어져만 갔다.

苛斂誅求에 대한 民衆의 絶叫도 가끔 일어 身命을 다해 抗拒했었는데 鮮末 勢道政治期에 旧左·朝天의 農民蹶起며 高宗間의 涯月·旌義의 民擾<sup>11)</sup>와 房屋七乱 등은 그 代表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런 先人들의 怒濤에도 溺死하지 않았던 不撓不屈의 敢耐精神을 繼承하여 歷史의 새로운 章으로 前進하여야 하겠다.

## 2. 倫理的 價値觀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80年代의 高度産業化社會를 맞는 우리는 그 逆機能인 人間疎外化 現象, 利己主義膨脹등을 克服하고 協同 및 団合의 社會를 이룩하며, 온 道民의 意識이 한 곳으로 集中-정해진 方向으로 行進하기 위해 「신바람」<sup>12)</sup>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곧 先人들이 남겨 놓은 耽羅精神의 바람직한 계승이다. 이 耽羅精神을 自然的·社會的·思想的·人文的 諸因子別로 살펴려 한다.<sup>13)</sup>

제주도는 旧石器時代와 青銅器時代 및 金石併用期의 遺物들을 지닌 環海孤島이며 도민의 성분은 地理的 與件上 韓民族을 基幹으로 倭·蒙·漢·琉球·呂宋 등과의 混血이 추측된다. 混血族으로 이뤄진 共同社會는 강한 生存意識 때문에 自己主義的 傾向이 짙으며, 人間型에 있어 소심하고 情의 生活이 優位인 融合型(integrierter typus)이며, 現實世界를 幻覺에 結合시켜 可變的·加工的으로 把握하고, 感性的 意識이 心理·精神의 意識까지를 包括하여 融合되어 있는 瞬間人(Augenblicksmensch)의이라 할 것이다.

- 10) 「耽羅紀年」에 따르면 光海朝로부터 1910년까지 凶年의 回數는 무려 70회에 달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11) 그 당시의 本島의 實情을 牧使 梁憲洙는 「大風雨折木飛瓦百穀絕種牧使巡城痛哭」(濟州道教育委員會; 「耽羅文獻集」, 耽羅紀年, 1976. P.441)이라 했었다.
- 12) 金炯孝; 「「신바람」의 性格에 대한 現象學的 分析」, 「韓國思想叢考」, 一志社, 1976, PP.14-21.
- 13) 한스(Nicholas Hans: *Comparative Education a Study of Educational Factors and Tradition*)에 따르면 民族性 形成의 要因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1. 自然的 諸因子
    - a) 體質人類學的 因子    b) 言語的 因子    c) 風土的 因子
  2. 社會的 諸因子
    - d) 政治的 因子    e) 經濟的 因子    f) 社會的 因子
  3. 思想的 諸因子
    - g) 巫敎的 因子    h) 儒敎的 因子    i) 仏敎的 因子    j) 基督敎的 因子    k) 天道敎的 因子
  4. 文化的 諸因子
    - l) 科學的 因子    m) 藝術的 因子    n) 文學的 因子

한편 粗面岩, 玄武岩 등의 地質인 本島는 地形生成上 幼年期여서 常流河川이 드물며, 畜作業이 稀少하고, 14) 古來로 食水難이 甚했으며, 瘠土로 인하여 播種後 牛馬踏田이라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 近海에는 暖流가 흐르나 造船術이 微微하여서 危險을 甘受하며 操業했어야 했다. 先人들은 이런 逆境을 諦念하면서도 塵土는 물론 바다에서마저 15) 不拔의 堅忍으로 果敢히 挑戰했고 進取的으로 打開해 나갔던 것이다.

麗末以後로 5百年間 赴任한 京來官 550명중 屈指의 몇 賢官을 빼고는 모두가 私慾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衙前輩들의 橫暴는 물론 더우기 元占으로 인해, 官吏·達魯花赤·土豪 등 二重搾取에 시달렸으니, 이런 与件下에서 自然 勤勉하며 自主·開拓하는 精神이 강해지고 節約하면서 自立·忍耐하는 德目이 生活化되었으며, 스스로를 지키고 鄉里를 死守하는 自衛精神은 自進奉仕와 協同을 낳게 되었다.

鮮朝에 들어서 流配地로 주목되면서 來島된 선비들은 본도민의 가슴 속에 銳利한 歷史意識에 입각한 國家觀과 事物의 合理的 處理能力 및 社會正義와 人間性들을 심어 주었고 崇文·崇禮·崇祖하는 仁의 實踐의 契機가 되었다.

오늘날 ① 個人的 自由에 대한 要求의 增加, ② 科學과 技術의 發達, ③ 複雜하고도 密接한 國際關係, ④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安保態勢의 確立, ⑤ 經濟의 繁榮을 基盤으로 한 国力伸張과 平和定着의 希求, ⑥ 觀光濟州의 開發과 社會福祉의 實現 등의 問題를 안고 있는 우리는, 우리 先人들이 남겨놓은 強忍不屈의 自主·自立·協同의 三德精神, 그리고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신바람」을 일으켜 더 豊饒하고 安定된 樂園濟州의 來日을 期約해야 할 것이다.

### 3. 民俗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

民衆의 傳統的인 生活樣式 全体를 意味하는 民俗은 集團意識의 鮮明을 可能하게 해주는데, 民俗은 그 범위가 넓으므로 여기서는 家族構造와 民間信仰 및 說話만으로 範圍를 局限하여 그 特性을 掃納하려 한다.

본도 家族構造의 特性은 육지와는 달리 實質的으로 核家族形態를 취하고 있다. 長男이 커서 結婚하게 되면 바깥에 別居하면서 父의 家族과는 各기 別個의 生活를 영위해 가고, 父母도 老齡으로 炊事能力이 없을 때까지 獨立生活를 꾸리어 나가나, 外형상으로는 直系 家族임을 표방

14) 제주도 塵土의 발파 논의 비율은 약 50대1이다.

15)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南權錄, 金尚應, 1976, P.5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濟州人 孫季枝曰 我州處在大海 波濤視諸海 尤爲凶暴 買船高船 絡積不絕 漂流沈沒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後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 女多三倍於男 爲父母者 生女則必曰 最善事我者 生男則皆曰 此物非我兒乃鯨之食也云”

한다. 16) 相統에서도 均分이 優勢하고 喪祭禮 역시 均担하게 되나, 表面上 長男이 代表權을 행사한다. 17) 이는 陸地文化 羨望에서 오는 劣等意識이라 보아진다.

또 男女分業에서도 女性의 勞動量이 많고, 그 收入도 主婦에 의해 管理되나, 對外的으로는 남성인 家長의 이름으로 經濟行爲가 행사되는데, 이도 家父長的 儒敎文化에의 羨望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실들은 본도의 자박한 현실을 극복해내기 위한 產物이었고, 勤儉·節約·自立精神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 그 否定的인 面도 濟州文化를 韓國文化 속의 地域文化로 調和시키면서 同軌로 만들어 주고 있다.

濟州의 民間信仰體系는 男과 女의 二重 信仰構造로 요약된다.

崇祖祭에서 巫俗祭儀인 귀양풀이·시왕맞이 등은 女性들에 의해 주관되고, 祭祀와 墓祭는 男性이 祭官이 되며, 女性은 祭物準備와 심부름을 맡는다. 家庭信仰도 성주·조왕·문신·안칠성·밭칠성 등은 主婦의 主管下 무당에 의해 致祭되고, 土神祭와 崇祖祭에 編入된 門神은 男性에 의해 儒式祭儀로 모셔진다.

部落信仰 역시 巫式祭儀인 당굿은 女性들에 의해 무당을 빌어서 행해지고, 儒式祭儀인 醮祭는 男性들에 의해 치러지는데, 이와 같은 二重構造는, 女性이 巫俗으로써 宗教의 本領을 占하고 있고, 男性이 儒禮로써 表層을 裝飾하면서 完結된 民間信仰體系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女性에 의한 巫俗信仰의 優勢는 濟州女性의 社會地位와 연관되며, 刻薄한 風土에서 超自然에로의 婦依現象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男性들에 의한 巫俗의 無視와 排他는 外部世界인 儒敎祭儀에 대한 自己卑下나 劣等意識으로 形成된 것이라 하겠다.

‘실문대할망’ 18) 이나 ‘쇠죽은못’ 같은 巨女 또는 女傑傳說이나, 아기장수型 19)·官員型·奴僕型의 壯士·英雄說話들은 外部志向의 劣等意識과 現實肯定의 守分意識間的 葛藤을 보이며 아쉬움의 限界를 담고 있다. 이 限界를 天然의 (‘아흔아홉골’) 20) 또는 人爲的 (‘고종달’) 原因의 風水思想으로도 說明하며 肯定하기도 한다. 그러나, 三姓神話 21) 등에 보이는 外部의

16) 濟州島 家族形態의 具體的 統計의 사해에 대해서는 玄容駿; 『社會-家族』,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PP.70~80 參照.

17) 玄容駿; 『濟州島의 喪祭』, 「民俗學研究」 42卷 3號, 日本民族學會, 1977, PP.249~266 參照.

18) 玄容駿;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6, PP.27~31. ‘실문대할망’ 만큼의 超人的 歷史를 喪象함에 있어 속웃 한번이 아쉽고, 軒치마로 흙을 날라 山岳을 창조하는 爲人으로 그려낸 것은 濟州도민의 짙어질 듯 가난한 생활의 반영이요, 儉素하고 勤勉한 生活精神의 表出이라 본다.

19) 아기장수型 傳說의 實例는 ‘배탁구룡’·‘坪坐부대자’·‘날개틀친密陽朴氏’·‘한연한배입계’ 등이 있는데, 玄容駿; 1976, PP.39~41, 169~171, 171~172, 185~190 등 參照. 이 類型의 이야기엔 장수가 되어 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아기가 날개를 끊어 버림으로써 出世하지 못한 아쉬움은 섬 사람으로서의 限界意識과 통하는 것인 동시에 守分의 願想을 表現한 것이기도 하다.

20) 玄容駿; 1976, PP.17~18 參照.

21) 三姓神話는 「高麗史」·「耽羅誌」 등 參照. 三姓神話와 같이 外來神話의 豐饒를 受容하여 농업을 시작하는 話素는 松堂系 堂神話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豊饒女神에 대한 態度는 外部世界の 豊饒를 包容・昇華시키고 利己・功利・排他・劣等 등의 否定的인 面을 解消, 調和시키는 賢明함을 보여 주는데, 이는 옛부터 있어온 本源的인 純粹德性으로 여겨진다.

이상 民俗 가운데서도 家族構造, 民間信仰, 說話分野에 국한하여 그 特性을 추출하고 거기에 담긴 意識을 분석해 왔다. 그 意識에는 肯定的 側面的의 것도 있고 否定的 側面的의 것도 있음을 確認했다.

肯定的 側面的의 德目으로는 勤勉・儉素・自主・守分・平和愛護가 두드러진 것이고, 否定的 側面的의 意識으로는 功利性・劣等意識・排他意識 등이 주된 것이다. 이 兩面的의 意識構造는 서로 無關한 것이 아니라 勤勉・儉素와 功利, 自主性和 排他意識, 守分과 劣等意識, 이처럼 한 묶음의 것으로 表裏關係인 것이다. 다만 時代에 따라 어느 側面に 더 기울어졌느냐의 變動의 反復이 있어 온 것뿐이다.

한편, 이들 意識構造의 背景에서 보면 勤勉・儉素・自主・守分・平和愛護 등은 濟州島の 風土的인 刻薄한 現實을 開拓, 克服하려는 強靱・不屈의 生活意識의 所産으로 現實肯定意識이라 要約할 수 있고 功利性・排他意識・劣等意識 등은 現實肯定意識의 裏面的의 意識이며 外部세계에의 羨望・憧憬에서 産出된 것으로서 外部志向意識이라 要約할 수 있다.

이러한 兩意識은 時代에 따라 어느 쪽에 偏差를 보여 왔겠지만, 三姓神話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 表裏의 두 性向을 調和, 昇華시키는 것을 그 理想으로 하고 있다. 이 表裏의 두 性向을 調和, 昇華시킨 集團意識, 그것이 耽羅精神이라 하겠는데, 그것을 어떤 適切한 語彙로 表現할 것인가 하는 것이 課題로 남는다.

#### 4.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風土란 土地의 氣候・氣象・地質・地味・地形・景觀 등의 總稱이라고 일단 규정한다.(和辻哲郎의 說) 좀더 擴大概念으로 보면 風土란 氣象 또는 地形이라는 가장 自然的인 要素, 人間 生活의 土台를 구성하고 있는 生産이라는 經濟的要素 및 觀念領域을 구성하고 있는 信仰・思想・法律・芸能 등의 觀念的要素 등 人間生活에 不可欠의 三要素를 뭉뚱그려 일컫는다.

제주도는 우선 섬이다. 섬, 곧 島嶼性이란 무엇일까, 島嶼性的의 發見 혹은 確認은 섬의 現實把握에서 가능하다. 우리는 經驗的, 歸納的으로 다음과 같은 島嶼性的의 特色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本土와 比較하여,

- ①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 (環海性)
- ② 本土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隔絶性)
- ③ 土地가 狹隘하다는 점 (狹少性)

등인데, 이러한 特性의 결과는 海上交通에 依存하게 되며 (時代의 發展에 따라 交通條件은 물론 달라진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危險度를 더하여 종종 杜絶되기 쉬워 交通의 困難性, 혹은 杜絶性에 의한 孤立 내지는 隔絶性 때문에 自給生活이 강제되며, 따라서 社會는 停滯하고 傳統的 生活文化가 잔존하는 後進性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島嶼地域의 特性을 生活과 관련시켜 요약해 보자.

① 섬은 四面環海이긴 하지만, 바다는 生活空間일 수 없으므로, 섬의 内部, 곧 물으로 向하는 求心的 힘이 작용한다. 섬, 그것은 地域社會 團體構成의 實驗室이 된다. 좁은 면적이므로 各部落間의 커뮤니케이션도 긴밀하며 均質化된다.

② 섬이라는 제약 때문에 諸般文化는 流入도 어렵지만, 일단 定着되면 改變과 輸出도 쉽다. 섬다운 傳統은 沈澱, 堆積되어 나간다. 이 堆積은 섬 文化의 精髓로서 固着된다.

③ 섬은 宿命的으로 閉鎖性, 自衛性이 있는 반면, 바다를 媒体로 하여 意外의 開放性도 共存하는데 이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韓國은 中國, 日本과 더불어 monsoon 지역에 속한다. 尹泰林은 일반적으로 monsoon 지역의 주민을 受容的, 忍從的으로 把握하고 있다.<sup>22)</sup>

제주도의 땅은 農業에 불리한 火山灰土다. 火山活動의 결과 地層浮薄하며 자갈 따위의 火山碎屑物이 地表에 깔렸으니 이른바 石多의 풍토다. 또한 風多의 섬이어서 겨울철의 北風은 10%를 넘을 때가 많은가 하면, 때로는 20%에 이른다. 暴風日數는 年中 약 9에 이르는가 하면 흐린 날씨는 年間 180일에 달한다. 이러한 氣象條件은 이른바 ‘地瘠民貧’을 부채질해 왔다.

高温多濕性은 牧草의 成長을 도와 이른바 牧畜地帶로 적격인가 하면, 農事를 지움에 있어 김매기가 年中 불가피한 일거리의 하나로 농민의 일손을, 특히 女人들의 勞動量을 加重시킨다.

‘섬’이라는 隔絶性 때문에 濟州民에게는 高度의 自給生活이 강제되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己完結性을 되어야만 했다. 이 自己完結性은 生命과 직결되면서 家族勞動力을 全力投力해도 家畜의 扶養에 不充하므로 女性의 過重勞動이 불가피해 왔다. 이런 實情이며, 도민의 性情은 자연히 自主·強韌·進取·信用·人情 등의 複合構造를 이룩해 온 것이다.

## 5. 民謠를 통해 본 沈澱精神

民謠는 民衆意識과 가장 直結된다. 民謠는 一般民衆에 의해서만이 전승되지 貴族이 共有하지

22)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8, P.80. 또한 濕潤에서 오는 受容의이고 服從의인 態度와 乾燥에서 오는 戰鬪의이고 對抗의인 성격이 (砂漠의인 요소) 韓國의 風土에서 오는 意識構造의 特殊性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래서 外部的으로는 意志的, 戰鬪的, 反抗의이면서도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感傷的, 受容的, 靜觀的인 점이 이런때에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해 주고 있다.

않기 때문에 他口碑文學(說話·俗談·수수께끼 등)에 비해서도 民衆的이다. 民謠는 또한 聽者를 意識하지 않아도 좋으므로 歌唱者의 生活感情을 마음대로 發散할 수 있으니 自足的이다. 民謠의 本領은 勞動謠<sup>23)</sup>요, 勞動은 일정한 機能을 지니고 있으므로 機能的이다. 民間生活 全般이 民謠 속에 뭉뚱그러지므로 民謠는 또한 地域의임은 民謠만이 지니는 바 유다른 특성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民謠를 통하여 한 지역의 民衆意識을 통계숫자처럼 살펴 알 수 있다.

우선 제주도 민요의 種類를 통해 본 도민의식은 무엇일까. 제주도 민요에는 첫째 勞動謠가 압도적으로 많고<sup>24)</sup> 둘째 女謠가 대부분인가 하면, 셋째 韓本土 民謠와 비슷한 민요가 드물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勞動謠가 質量으로 秀逸한 이유의 하나는 어느 지역과도 달리 ‘맷돌·방아노래’가 풍부하다는 사실이다.<sup>25)</sup> ‘맷돌·방아노래’는 제주도 민요의 王座이면서 제주도 노동요의 무려 70%내외에 이른다. 또한 海女는 이 지구상에 韓國과 日本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海女들에 의하여 불리는 ‘海女노래’역시 제주도에서만 본격적으로 전승된다.<sup>26)</sup> 勞動謠는 민요의 本源이며 그 主軸이다. 제주도 민요의 거의가 勞動謠임은 제주도 민요의 特長이다. 도민들의 自彊·勤勉性이 실로 세계적임을 立証해 주는 數值的 根拠다.

伝承者로 보아서는 女謠가 압도적이어서 勞動謠의 경우, 男謠 대 女謠의 比率은 約 1대 4로, 이는 女性의 勞動量이 엄청날 뿐더러 女人들의 活動力이 엄청남을 雄辯해 주는 論拠이기도 하다. 제주도 여성들은 海女질을 위해 東北亞細亞 4개국에 出稼하면서까지 제 生業에 生命을 건다.<sup>27)</sup> 제주도 민요 거의가 韓本土 民謠에 비해 유다른가 하면, 特有的 謠種 또한 많다. ‘맷돌·방아노래’가 多量 전승되는가 하면 ‘海女노래’·‘밭밟는 노래’와 ‘冠網謠’<sup>28)</sup>(‘양태노래·망건노래·망건노래’) 등은 제주도에서만 전해진다. 이처럼 勞動謠가 많다는 사실은 제주도민의 自主·自彊·勤勉·不敗의 정신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제주도의 勞動謠에서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金榮教의 「濟州島民謠研究(上)」에 수록된 노동요 1,142편의 題材를 分類, 집계해 보면 生活苦(244편, 21.4%)와 勞動生活(240편,

23) Karl Bücher; *Arbeit und Rhythmus*, (Leipzig und Berlin, 1909 vierte, neubearbeiten Auf.), p. 357.

24) 예를 들어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 1965)에 수록된 민요수는 1,403편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勞動謠 1,142편이니 그 비중은 실로 민요 총수의 5분의 4에 달한다.

25) 金榮教; 「濟州島의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第8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4, pp. 43~58.

26) 金榮教; 「海女노래와 海女」, 「李崇寧先生 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7, pp. 435~456.

27) 金榮教; 「濟州島 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 pp. 307~324.

28) 金榮教;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

21.0%)에 상당한 비율이 쏟혔다.<sup>29)</sup> 이 또한 女人들을 위시한 도민들의 自主·自彊·勤勉·不敗의 意志를 지척하는데 論拠가 되는 터이다.

다음에는 勞動謠 몇편을 任意 選擇하여 그 속에 담긴 民衆意識을 간추려 왔다. ① 忍苦, ② 不敗, ③ 自彊, ④ 實行 등 4개항이 추출되었다. 이는 곧 "忍苦 不敗하면서, 自彊 實行한다"는 命題로 압축된다. 곧 '自彊·不敗精神'이다. 이 근원에는 이른바 '環海天險, 地瘠民貧의 섬'인데다 눈물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이다.<sup>30)</sup>

제주도는 火山灰土로 이뤄져 地瘠民貧한데다 三災가 뒤덮이는 空間 위에 ① 地方官吏와 土豪의 収奪·橫暴, ② 中央政府의 등살, ③ 蒙古의 侵害, ④ 苛酷한 貢賦, ⑤ 加重된 賦役, ⑥ 倭寇의 侵暴 등 極惡한 歷史가 덮쳐 흘렀다. 그리하여, 悲痛·痛恨·宿命·忍辱·忍苦 등의 민요가 散見된다.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의 謠 405, 138, 152, 721, 등은 그 代表謠들이다.

<내 어머니도 날 아니 낳고/내 아버지도 날 아니 낳고/짐 진 산이 배 빌어 낳았네>(謠 138) 라는 노래에서는 시지프스의 苦惱를 宿命처럼 受領, 敢耐해야 함을 뜻하는가 하면, <내 前生은 세아 前生이네/돌아가며 날 울리더라>(謠 152)고 因果業報를 想定하기까지에 이른다.

잇달아 억척스런 勤勉과 더불어 樸朴·節儉·節制와 不敗의 意識이 깔린 노래 (謠 98·86·816·835) 들을 본다.

<본디 저녁 어둡는 집에/오늘이라고 밝은 때 하라/어둡기든 밤이라 말라/밤도 아니 어두울 러라>고 노동이 生活의 전부일 바에야 밤도 밤이 아니요, 밤도 어디 어둡겠는가고 逆說한다. (謠 86) 바닷가 마을마다 흩어진 海女들은 <魂帛箱子 등에다 지고 / 가슴앞에 두렁박 차고/한 손에 호미를 쥐고 / 한길 두길 깊은 물속 / 허위쳐 허위쳐 들어간다>고 노래하며, 海原에 生命

29) 濟州島民謠 勞動謠의 題材分析

資料;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No.	題 材	篇 數	百 分 率
1	生 活 苦	244 편	21.4 %
2	勞 動 生 活	240	21.0
3	自 立 · 勤 勉	46	4.0
4	시 집 살 이	93	8.1
5	愛 情	127	11.1
6	家 事 · 家 族	191	16.7
7	警 世	88	7.7
8	信 仰 · 風 土	57	5.0
9	꿈 · 土 망	56	5.0
	計	1,142	100 %

30) 金榮教; "濟州島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知恩叻時敏博士回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78, PP.463 ~ 472.

을 건다. (謠 835) 이들은 다만 제주도 연안에서만 아니라, 東北亞細亞 4개국에까지 出稼하면서 生活과 싸운다.<sup>31)</sup> 아예 魂帛箱子를 등에 지고 生活第一線에 목숨을 바친다.<sup>32)</sup> 海女作業이 극성스런 곳에서는 열길·열두길의 水深에서도 作業하다 보면 저승길도 오락가락 한다.<sup>33)</sup> 눈물을 삼키며 일어난 이 不敗의 意志는 하나의 勝利요, 聰明이요, 炯眼이니 不可思議한 힘으로써 역사가 있어서 이래, 綿綿한 세월, 도민들을 規律하고 激勵해 오는 것이다.<sup>34)</sup> 월, 도민들을 規律하고 激勵해 오는 것이다.<sup>34)</sup>

自主·自立·自力·自足·自尊·自強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들도 꽤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金榮教, 1965, 외 謠 59·63·694·1,095 등이다.)

<員의 아들 員인 제 말라/臣의 아들 臣인 제 말라/헌 자리에 헌 배개 베니/員도 臣도 두려운 바 없다 > (謠 63) 고 守分·知足하면서 自尊하는 의식이 보이는가 하면, '서울'이라면 선비·君子·兩班·官吏의 고장이요, 權勢와 威勢의 代名詞로 흔허들 관념하면서 무한한 羨望·憧憬의 대상으로 비치고 있지만<sup>35)</sup> <서울 서울 어떤 게 서울/한술 밥을 열놈이 먹어/쉽게 사니 서울이더라 > (謠 694) 고 노래하면서 濟州에서의 生活, 그 자체에 오히려 合理的 自矜을 느끼는 터이다.

羨望·抗拒를 自慰·自尊으로 昇華시키면서 守分·知足으로 實質에 터전하면서 건실하게 實行해 나가는 意志도 드러난다. (例謠, 謠 1,077·691·73)

오름에 들팡	지세어 명은
등글어 맹기당도	살을 매 난다
놈의 칩팡	소낭괴 브롬은
소린 나도	살을매 옷다
버룩버룩	살마곳은
항물 피영	웃어나진다. (謠 557)

語訳 : <오름> (岳)에 들과 <지세어명> (賈婦)은  
갈러 다니다가도 살 도리 난다.

- 31) 金榮教;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 PP. 307~324.  
32) 金榮教; 「濟州島民謡研究(上)」, 一潮閣, 1965, 謠 832.  
33) 濟州大學 「國文學報」, 第六輯, 濟州大學國語國文學會, 1974.  
34) 金榮教; 「濟州島民謡研究(上)」, 一潮閣, 1965, 序.  
35) 金榮教; "濟州島民謡에 비친 서울",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68, PP. 119~131.

남의 첩과	소나무 바람은
소린 나도	살 도리 없다.
번듯번듯	半夏꽃은
하루 피어	없어진다.

忍苦・不敗하면서 自強・実行하는 들의 哲理은 역사가 있어서 이래, 連綿히 道民의 意志를 키웠던 自強不敗의 耽羅精神이다. ‘石多’는 濟州도의 實情이요, 道民들은 好惡間 들의 美學을 天惠의 資産으로 收領했다.<sup>36)</sup>

#### 6. 自衛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부족 국가로 기초가 다져지면서부터 自護를 위해 戰略的으로 新羅와 結托 또는 百濟에 臣事를 했던 耽羅國은 그 自体防衛能力의 欠如에 대한 嫌疑를 벗을 수는 없더라도 積極的인 同盟關係로써 安全을 지키는 機敏한 能力을 發揮하였었다.

三別抄의 入拋로 元侵을 받았을 때, 비록 反逆으로 간주되던 그들에게 築城 賦役이나 대비나 재마워 義務의 納賦의 消極的인 同調만을 보였으나, 元占으로 인하여 異民族의 時달림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과 自衛意識을 切感하였었기에 元吏인 耽羅總管府 總管 高仁且은 元에 耽羅返還을 요청하였고, 金廣 등은 牧胡 討伐에 앞장섰다.

濟州島의 경우, 倭寇는 이미 忠惠王 2年(1341) 旌義境 來侵을 시작으로 그 侵掠이 本格化되었다. 그들은 海上에서 賈物船을 습격하거나 本島의 海岸地方에 出沒하여 나룻배를 약탈하는가 하면 兵船을 불살랐고, 양민을 죽이는 등 온갖 殺人과 掠奪行爲를 恣行하였었다. 이러한 倭賊侵入은 高麗時代에 5回, 朝鮮에 들어서서 太宗時에 5回, 明宗時에 4回나 계속적으로 侵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뒤 각 王代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近 300年間 계속되었다.

高麗末부터 朝鮮中葉 사이의 本島에 대한 倭寇侵入 狀況은 다음 表와 같다.<sup>37)</sup>

高麗 忠惠王 2年 旌義境 來襲의 기록에서부터 볼 수 있는 倭賊의 本島 擄掠질에 대하여 高麗 高宗은 防護別監을, 元宗은 防護使를 두었고, 忠烈王은 耽羅萬戶府로써 방위를 굳혀갔다.

朝鮮朝 世宗은 築城과 烽燧台 및 軍士 操練場으로 觀德亭을 짓고, 雜色軍을 編成하는 등 방어 체계를 確立시켰으며, 世祖는 鎮을 설치하여 陸水軍鎮營體制를 이룩하는 등 대비를 강화해 나갔다.

36) 金榮教; “濟州島民謡와 石多”, 「韓國民俗學」, 通卷3, 民俗學會, 1970.

37) 이 表는 李元鎮의 「耽羅誌」(1653)와 金錫翼의 「耽羅紀年」(1918)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倭寇侵入狀況(高麗朝 忠惠王 - 朝鮮朝 光海君)

王朝別	年 代	回数	王朝別	年 代	回 數
高 麗	忠惠王 2年(1341)	1	朝 鮮	太 宗 18年(1418)	1
	忠惠王 3年(1342)	1		文 宗 元年(1451)	1
	忠定王 3年(1351)	1		中 宗 35年(1540)	1
	恭愍王 元年(1352)	1		明 宗 7年(1552)	1
	恭愍王 8年(1359)	1		明 宗 9年(1554)	1
	偶 王 2年(1377)	1		明 宗 10年(1555)	1
	偶 王 3年(1378)	1		明 宗 13年(1558)	1
朝 鮮	太 宗 元年(1401)	1	宣 祖 14年(1588)	1	
	太 宗 4年(1404)	1	光 海 6年(1614)	1	
	太 宗 6年(1406)	1	計	20	
	太 宗 8年(1408)	1			

築城은 奇襲倭賊에 대한 效果的 방어책으로 高麗 肅宗 10年에서부터 이뤄졌으나, 朝鮮朝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화되어 濟州·旌義·大靜의 三邑城을 비롯, 朝天館·別防·水山·涯月·明月·遮滯·東海·西滯·寧瑟浦·禾北 등의 防護所에도 城을 쌓았다.<sup>38)</sup>烽燧制는 世宗 21年에 처음

38) 倭侵에 대비한 諸城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표는 金泰能; “제주도내 계성의 유래”, 「제주도」, 15호) 및 朴用厚; “제주도의 성지 및 방위시설”, 「제주도」, 66호)에 의거 작성되었다.

倭寇의 侵入에 對備한 濟州島의 諸城

項 区分	城区分	築 城 時 期	둘레 (尺)	높이 (尺)	備 考
三 邑 城	旌義邑城	明宗 21年(1566)	7,340	11	肅宗 10年 築城 다시 遷築 拡張
	濟州城	世宗 5年(1423)	3,013	8	古旌義城을 移転 築城
	大靜邑城	太宗 18年(1418)	2,800	10	宣祖에 臺城과 砲臺 加築

본도에서는 실시되어 22煙台가 지어졌고, 中宗 5년에는 63個所로 늘었다.<sup>39)</sup>

한편 民擾도 自主·自衛側面에서 주목할 必要가 있는데, 高宗年間の 庚寅 및 丙申 民擾와 房星七乱 등은 汚吏의 貧虐에 대한 抗拒였고, 李在守亂은 外人神父의 무자비한 橫暴에 대한 主体意識의 昂揚이며 自主·自衛의 蜂起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日帝強占下の 黃蛇坪義挙와 朝天獨立萬歲事件과 軍資金募金事件은 濟州島民의 純粹한 愛國獨立運動이며, 太乙教亂과 海女蜂起事件 등도 國家忠義에 투철한 精神을 보여 주고 있다.

해방후의 4·3事件 發生時는 만 5년동안 軍警民의 합동 작전으로 아찔없이 滅共意志를 보여 주었으며, 6.25 당시에는 투철한 滅共意識으로써 陸海空軍에서 그 기량을 發揮하였고 後方保置로서, 兵站基地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다.

오늘날 東南亞의 情勢變動에 따라 南海의 制空制海가 강대 세력들의 이익 확장에 血眼이며, 그 中心地인 濟州도와 그 近海는 이해의 각축장이 되면서, 北傀의 迂廻侵透의 適地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80年代의 韓國安保는 濟州도와 그 近海를 效率的으로 活用하는 次元 높은 政策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 先人들이 積極的 自衛精神을 堅持하여야 할 것이다.

### 7.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文化란 人類가 모든 時代를 통하여 이룩해 놓은 精神的, 物質的 一切의 成果를 말한다. 前述되어 온 바 歷史·民俗·民謠의 側面 또한 文化에 包括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濟州의 自然的·歷史的 環境의 특수성을 살피고 耽羅文化를 형성시킨 耽羅人의 精神的 基底가 무엇인가를 고찰한 다음, 耽羅文化의 特色을 살피려 한다.

38) 倭寇의 侵入에 對備한 濟州島의 諸城(統)

項 區分	城區分	築城時期	둘레(尺)	높이(尺)	備 考
防 護 所	朝天鎭城	中宗 15年 (1518)	430	10	金寧 防護所를 移轉
	別防城	中宗 5年 (1518)	2,390	7	
	水山城	世宗 21年 (1439)	1,064	16	三別抄의 木城을 浦口로 移轉石築 도내 防護所중 規模가 가장 큼
	瀝月城	宣祖 14年 (1571)	549	8	
	明月城	中宗 5年 (1510)	3,020	8	
	遮帶城	世宗 21年 (1439)	1,190	10	肅宗 4年 驀惡浦로 移轉
	東海城	中宗 5年 (1510)	280	8	
	西帶城	明宗 22年 (1576)	825	12	
	驀惡浦城	肅宗 4年 (1678)	315	12	
	禾北城	肅宗 4年 (1678)	660	12	東海城의 移轉

39) 烽臺의 拳火가 얼마나 道民 生活와 密着되었는가는 現伝하는 민요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아도 짐작된다. (金榮教; 「濟州島民謡研究(上)」, 一潮閣, 1965, P.389, 謠 1323 ~ 1328.)

濟州의 自然的 環境은 風多災·水多災·旱多災, 곧 三災(당시의 '濟州三多')로 요약된다.<sup>40)</sup> 이런 逆境을 이겨 싸우는 濟州海女の 慘狀을 宋時烈도 어렵히 표현한 바 있다.<sup>41)</sup> 海女の 괴로움을 잘 알았던 奇度牧使는 목사 在任中 전복을 一切 먹지 않았다고 전한다.<sup>42)</sup> 이런 속에서 逆境을 이겨 싸워 이겨내는 不敗의 정신은 굳건히 길러졌던 것이다.

濟州의 歷史的 環境은 눈물로 얼룩진 収奪과 压制 그것이다. 蒙古와 麗朝에 대한 二重的 隸屬 京來官의 惡政과 行悖, 극도의 苛斂誅求 등 이루다 기록할 길이 없다. 얼마나 해야 金尚憲은 "何時死去得免此苦"라 노래했을까.

不利한 自然과 歷史를 이겨낸 耽羅精神을 간추려 보자.

勸勉·自助: 環境의 惡條件은 金淨의 "耕者是 魚腹을 捶捌하는 것 같고"<sup>43)</sup> 라는 표현에서나 李元鎮의 "連耕二三年이면 穀穗無實"<sup>44)</sup> 이란 표현 및 金尚憲의 "浦作人들이 其役을 못이겨서 流亡溺死함이 十存二三한다"<sup>45)</sup>는 기록에 잘 드러나 있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惡條件과 싸워 이겨 生存하기 위해 勸勉해야만 했고 또 自助해야만 했다. 낮이면 밭에 가고, 밭일이 한가하면 바다에 갔으며, 밤이면 들어와 명석이나 짚신을, 여자는 양태와 탕전을 짜고,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은 그물을 손질하였으니, 勞動만이 곧 生存이요, 그런 까닭에 본도의 민요가 그 대부분 노동요다.

儉素·節約: 金尚憲이 "백성들은 朴野하다"<sup>46)</sup> 라고 표현하듯 도민의 衣食住 어느 하나 純朴하지 않고 非實用的인 것은 없다. 무명에 감물을 들여서 만든 <갈증이>는 작업복이면서 나들 이웃으로도 입으며, 風水旱 三災에 더불어 隔絶性 때문에 도민들은 항시 不意의 災難에 對備하여 저축하는 質朴·儉素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協同·相助: 絶海孤島라는 한정된 사회에서 長久한 시간을 共同으로 生活해 온 도민들은 血緣的으로 서로 關聯되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協同과 相助는 늘 實生活에서 요구되어 온 必然的인 것이다. 그러기에 農事는 물론 建築이나 四禮 등에서도 이웃과 친척이 共同으로 協扶하며 치러져 온다. 이 協扶精神은 치올라가 三神人이 三姓穴에서 태어난 이래, 定配過程에서나, 居住地를 정하는 過程에서도 드러나 있다.

40)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二, 1918, 世宗 10 年條.

41) 金尚憲; 「南槎錄」, 1601, 序文.

42) 金錫翼; 「耽羅紀年」 卷之二, 1918, 世宗 25 年條.

43) 金 淨; 「濟州風土錄」, 1521,

44) 李元鎮; 「耽羅志」, 1653, 濟州風土條.

45) 金尚憲; 「南槎錄」 卷之一, 1601, 宣祖 34 年 9 月 22 日條.

46) 前同.

強靱・進取：李健은 濟州를 最謫地라 하고 粟飯・蛇蝎・波濤소리를 三苦라 하였으며,<sup>47)</sup> 金尙憲은 五個弊癘<sup>48)</sup>과 더불어 “언제 죽어 此苦를 면하리”하는 絶叫을 적고 있는데, 본도민들은 그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그만큼 피로운 것이기에 늘 生活의 改變을 꿈꾸고 설계하는 進取의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高厚・梁宕 등의 入朝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도민수에 맞먹는 道外進出者들이 40餘萬名에 이름이 이를 立証하고 있다.

三多・三無：三多是 그것이 風・水・루多로 표현되든, 石・風・女多로 표현되든 간에 환경의 가혹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女多是 女人의 自助・勤勉性을 力說해 준다. 이 불우한 운명을 슬기와 不敗의 정신으로 이겨내고 스스로의 삶을 開拓하며 이룩한 사회가 盜賊・乞人・大門이 없는 三無의 사회인 것이다.

기구한 환경과 도전하며 살아온 도민들에게는 잠곡밥에 생배추를 싸먹거나, 전복・소라 또는 날고기를 된장에 푹푹 찍어 먹는 質朴性이 있고, <갈중이>나 새끼줄로 인 초가지붕과 <물허벅>에 그 지혜를 담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싸여 있는 들담과 들벽에서 그 묵중하고 견고함을 느끼고, <정낭>이나 牧草地에서는 정작 부드럽고 따스한 인심을 읽을 수 있다.

耽羅精神을 貫流하는 不屈不敗의 意志와 함께 耽羅文化의 特徵이란 生硬한 것이면서도 묵직하고 투박스러운 것이면서도 소박하며 따스한 것이다. 이런 耽羅精神의 바탕은 오늘날 세계 人類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극복함은 물론, 우리 온 국민이 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3.1 運動의 基本精神으로 活用될 수 있도록 反響을 불러 일으킬 必要가 있음을 切感한다.

### 三. 耽羅精神 分析

以上 7個分野에서 濟州民의 伝來의 民衆意識을 검토해 보았다. 課題에 接近하는 그 方法은 제각기 다르지마는 다만 <耽羅精神>을 濟州民의 平均의 民衆意識, 곧 時空的・集團的・社会的 性格이란 전제 아래 그 究明을 試圖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7個分野의 公約數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각의 結論만을 한눈으로 鳥瞰할 수 있도록 간추려 정리해 보기로 한다.

47) 李 健; 「濟州風土記」.

48) 金尙憲; 「南槎錄」 卷之四, 1601, 宣祖 34年 10月 18日 采.

\* 곧 金尙憲이 어느 校生 한 사람을 불러 耽羅의 故事를 물었을 때 다섯 가지 弊癘을 열거하였는데; ①封送馬之弊 ②生物價之弊, ③營軍官之弊, ④京貿易之弊, ⑤京点馬之弊가 그것이다.

1. 歷史的 側面

- 1.1 強韌不敗의 精神 (七顛八起의 忍耐力)
- 1.2 勤儉·節約의 精神
- 1.3 不屈不撓의 敢鬪精神 (惡政에 대한 抗拒)
- 1.4 自存·自立·自衛의 精神

2. 倫理的 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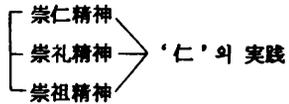
(1) 自然·社會·人文的 諸因子에 따라

1.1.1 自然的 因子~強韌不屈의 精神

1.1.2 社會的 諸因子~三無精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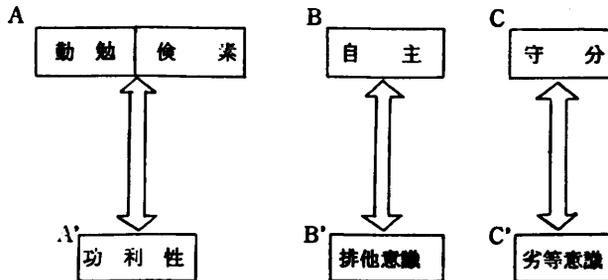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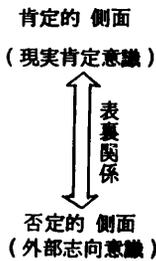
1.1.3 人文的 諸因子~선비정신 (流配은 선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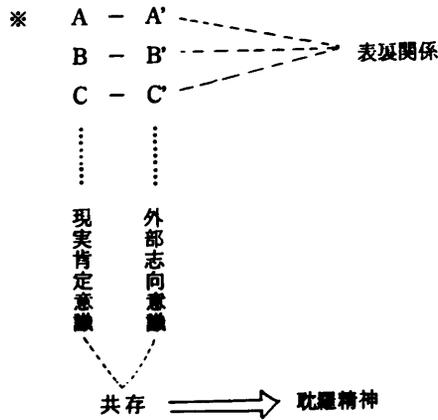


(2) 濟州民의 行動哲學의 基底가 될 耽羅精神의 精髓

- 2.1.1 基本的 生活의 安定을 위한 相互間의 人和와 協同
- 2.2.2 儉素하는 生活, 節約하는 마음가짐의 生活化
- 2.2.3 선비氣質의 發揮로써 人間的 價値의 수립

3. 民俗的 側面





#### 4. 風土的 側面

4.1 韓國은 monsoon 지역이므로 濕潤的 要素와 乾燥的 要素를 共有하는 바, 제주도 역시 이 兩者의 接合地点이라 본다.

※ 韓國의 風土~monsoon地域~제주도 역시 해당

{ 濕潤~受容的・服從的・感傷的・靜觀的 ~ (內部) }  
 { 乾燥~戰鬪的・進取的・對抗的・意志的・能動的 ~ (外部) } 兩者의 接合点~濟州의 風土 의 風土

4.2 自立性 }  
 強韌性 } 实用性 (道內)  
 協同性 }

4.3 信用 ~ { 自立性 } 实用性 (道外)  
 { 進取性 }

#### 5. 民風的 側面

○堅忍・忍苦 ~ 忍苦 }  
 ○勤勉・儉素 } 不敗 } 忍苦・不敗의 精神  
 ○質朴・節制 }

自強・不敗의 精神

○自力·自立·自主	}	自彊	}	自彊·実行의 精神
○自足·守分·自彊				
○真率·抗拒	}	実行		
○自慰·実利				

6. 自衛的 側面

- 6.1 三·四重의 빈번한 外侵에 抗拒하는 自衛的 精神 堅持! 堅持
- 6.2 다만, 積極的이고 能動的 自主防衛精神 欠如

7. 文化的 側面

- 7.1 環境을 克服한 鬥羅精神
- 7.1 環境을 克服한 耽羅精神

- (1) 勤勉·自助
- (2) 儉素·節約
- (3) 協同·相助
- (4) 強靱·進取
- (5) 崇祖·선비기질

- 7.2 三多의 逆境을 克服한 三無의 美風

三多	{	(1) 多風災	~	{	(1) 風多
		(2) 多水災			(2) 石多
		(3) 多旱災			(3) 女多

三無	{	(1) 盜無
		(2) 乞無
		(3) 大門無

- 7.3 어떤 逆境에 부딪쳐도 이를 克服하면서 信念으로써 理想을 追求하는 不屈不敗의 精神

이상 각 분야에서 지적된 바 共通因子는 무엇인가. 그 共通因子를 간추려 내는 방법으로 제주 민의 민중 의식을 말하는 결론적 어휘를 집계해 보았다. 그 집계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비슷한 어휘는 하나로 묶었다. (아라비아 숫자는 그 頻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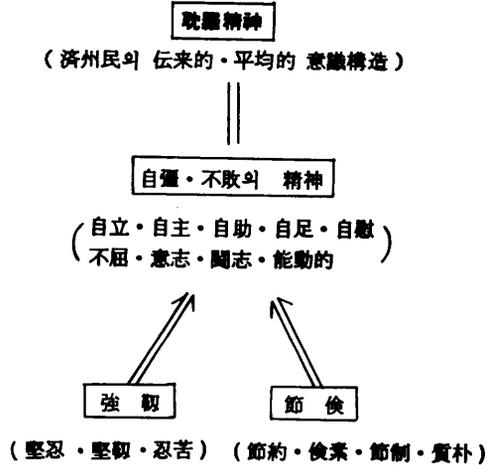
○自彊 (自主·自立·自助·自力·自足·自衛)	14
○不敗 (不屈·意志·鬪志·能動的)	8
○節儉 (節約·儉素·節制·質朴)	8
○強靱 (堅忍·堅韌·忍耐)	7
○勤勉	5
○實利 (實用·功利·實行)	5
○抗拒	4
○協扶	3
○선비정신 (崇祖·崇仁·崇禮)	3
○劣等意識 (受容的·服從的)	3
○進取的	3
○自衛	2
○開拓	1
○和睦	1
○排他	1
○感傷	1
○靜鎮	1

이상의 集計에 따르면, 濟州民의 民衆意識을 要約하는 結論的 語彙로서 7個分野에서 各各 그 頻度수가 가장 높은 語彙를 順序대로 拵라 본다면 ‘自彊’·‘不敗’·‘節儉’·‘強靱’·‘勤勉’·‘實利’ 등이다. (5回數 이상의 頻度 語彙)

여기 각각 그 어휘들을 묶어 표현해 본다면, 그 順序에 따라 ① ‘自彊·不敗의 정신’, ② ‘強靱·節儉의 정신’, ③ ‘勤勉·實利의 정신’으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① 自彊·不敗의 精神
- ② 強靱·節儉의 精神
- ③ 勤勉·實利의 精神

이렇게 3項을 설정해 놓았지만, 이 3項은 제각기 서로가 無關한 側面을 지척한다기보다 相互 密着되어 있다. 말하자면 ‘強靱’·‘節儉’, ‘勤勉’·‘實利’가 서로 近似한 概念일 뿐더러, 이들은 終局 ‘自彊’·‘不敗’를 낳는 그 基調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의 一次的 作業 結果로 보아서 濟州民의 伝來的, 平均的 意識構造는 한마디로 말하여 무엇이냐고 물을 때면, ‘自彊·不敗의 精神’이라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序에서 전제한 바 있지만, 이렇게 集約해 놓고 보니, 濟州民의 平均的 民衆意識— 곧 時空的·集團的·社会的 性格을 分析 總括한다 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 欣快하지 못할 뿐더러, 民衆意識을 全面的으로 把握할 수 없었음이 안타깝다. 그리고 모든 事理에는 機能과 逆機能이 있듯, 肯定的 側面과 否定的 側面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 後者를 외면한 느낌이 짙다. 말하자면 濟州民의 伝来的 民衆意識 가운데서도 바람직한 면에만 力点 두었지, 바람직하지 못한 면에는 눈을 가려버린 不透明性이 짙었다는 말이다. 다만 앞에서의 結論의 語彙 가운데서 ‘劣等意識’ ‘排他’ 등이 바람직하지 못한 意識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立証된다.

비단 機能—逆機能이나 肯定的-否定的이란 好惡間의 對蹠的인 면분이 아니라, 好惡나 善惡을 떠난 視点에서도 모든 集團意識에는 兩側面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우리는 루드·베네딕트(Ruth Benedict)가 日本의 文化型을 분석하는 그 態度와 結論이다.

루드·베네딕트 여사(1887~1969)는 이미 「文化的 類型」(*Patterns of Culture*, 1934) 「種族」(*Race: Science and Politics*, 1940)이란 名著를 지니고 있지만 晩年の 「菊花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1946)은 1944년 6월 美國務省 위촉으로 平均的 日本人(average Japanese)의 行動과 思考의 型(pattern)을 탐구한 것인데, 대체적으로 部分的 體驗은 全体的인 方法論을 망쳐 놓기 쉽다는 그 慎重性 까닭에 저자 자신은 日本을 한번도 訪問한 적이 없었다는 그 嚴嚴한 學問的 態度를 보여 주었다. 아울러 女史는 이 名著 속에서 日本의 文化型을 책 제목이 가리키듯 ‘菊花’와 ‘칼’이라는 極端的 象徴으로써 표현하였다는 데 注目해야 할 것이다.<sup>40)</sup>

그러니까 伝来的 濟州民의 平均的 民衆意識을 ‘自彊’이나 ‘不敗’의 精神이라고 일차 縮約한다 하더라도, ‘自彊’이나 ‘不敗’와는 오히려 對蹠的인 概念들을 想定하여야 할 것이다. ‘不敗’는 일단의 ‘敗北’를 바닥에 깔고(제주도 特有의 地理·歷史的 惡條件) 그 바탕 위에 確乎히 構築되었는가 하면, ‘自彊’ 또한 地瘠과 民貧의 痛憤과 눈물·被壓이 얼룩진 위에서 生成된 信念이요 意志요 信仰인 것이다.<sup>50)</sup> ‘自彊’으로 대표되는 自立·自主·自助·自足·自力 自慰 등이나 ‘強韌’ (堅忍·堅韌·忍苦)·‘節儉’ (節約·儉素·節制·質朴)만 하더라도 막스 웨버(Max Weber)가 지적한 바, 売買 行爲가 가장 合理的 人間行爲로 보았듯,<sup>51)</sup> 強韌·節儉해야 되고 實利(實用·功利·實行)에 밝아야 하며, 勤勉·協扶하면서 선비정신 또한 바탕에 깔아야 하는 實情이나 餘件으로 말미암아졌다 할 것이다. 그날그날 살기 위해서 自我否定的 服從이 尙요되는 生活과 이를 밑바닥까지 거치고 나선 그 바탕 위에 自彊·不敗의 意는 굳혀졌다고 본다.

사람은 대체로 二律背反的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人間社會 또한 그 集團의 성격이 어떻게 背反的 二律이 共存하게 마련이다. 韓國人의 경우는 崔在錫도 지적하고 있듯이<sup>52)</sup> 포말(formal)한 生活과 인포말(informal)한 生活이 混同하는 경향이 짙은 듯 하다. 濟州民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例外일 수 없다.

#### 四. 結 (餘言)

‘耽羅精神’을 定立해야 함은 우리의 使命이다. 그것은 濟州道의 改変이 近者 超速度的인데

- 49) 俳優와 藝術家를 尊敬하며, 菊花를 가꾸는 데 神祕로운 技術을 가진 耽美主義를 숭배하는 國民에 관한 책을 쓸 경우, 동시에 國民이 칼을 숭배하며 武士에게 최고의 榮譽을 돌린다는 사실을 記述한 또 다른 책에 의하여 그것을 補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순이 日本에 관한 책에는 繆(經)과 倭(韓)로 되어 있다. 그러한 모순은 모두가 眞實인 것이다. 칼도 菊花도 함께 한 그림의 部分인 것이다. 日本人은 最高度로 攻撃的이자 非攻撃的이며, 軍國主義的이자 또한 耽美的이며, 不遜하면서도 禮儀 바르고, 頑固하면서도 適應性이 풍부하며, 柔順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리면 憤慨하며, 忠實하면서도 不忠實하며, 勇敢하면서도 겁장이며, 保守的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맞이한다. 그들은 自己行動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敏感하지만 同時에 다른 사람이 自己의 잘못된 行動을 모르게 될 때는 犯罪의 誘惑에 지고 만다. 그들의 兵士는 철저히 訓練되지만 또한 反抗的이다.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1946, 金允植·吳麟錫訳, 乙酉文庫, 1974, PP.10~11)
- 50) 이 점은 「二, 耽羅精神 概論」에서 가끔 지적되었다.
- 51) Max Weber; *Soziologische Grundbegriffe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56.
- 52) 崔在錫; 「韓國人의 社會的 性格」, 開文社, 1979; PP.190~191.

도 原因하거와 善美한 文化伝統을 계승해야 할 召命意識을 忒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國家·民族이나, 한 地域의 優劣을 평가함에 적용되는 몇몇 基準 가운데서 가장 所重한 것은 '文化'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濟州가 영원히 살 길은 濟州의 個性의 伸長이다. 濟州의 個性은 濟州의 主人意識이요, 그 主体性이다. 主体性을 확호기 불되기 위해서는 濟州의 個性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를 把握함이 얼마나 至難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무엇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濟州民의 平均的 民衆意識을 간추려 내야 할지 우선 그 作業의 着手에서부터 困惑에 빠진다. 우리는 우선 可能한 대로 ① 歷史的, ② 倫理的 價值觀, ③ 民俗的, ④ 風土的, ⑤ 民謠的, ⑥ 自衛的, ⑦ 文化的 - 7個 觀點을 통하여 그 接近을 試圖해 보았다. 이 觀點들이 合理한가의 與否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7人의 專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러(G. Gorer)는 美國人의 性格을 美國人들의 生活經驗, 곧 愛情·友情·싸움·浪費·出版物·時論 批判 등을 資料로 하여 考察한 바 있다.<sup>53)</sup> 베네딕트(R. Benedict)는 平均的 日本人의 生活을 탐구함에 있어 그 資料로서 日本人의 政治 經濟生活·성과 家族生活·宗教生活·育兒方法 등을 동원함으로써 '수치의 문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sup>54)</sup>

美國人·獨逸人·日本人의 性格을 비교 고찰하였던 영(K. Young)은 그 방법으로 7개 側面을 동원하였었다.<sup>55)</sup> 따라서 이 작업이 성숙한 것이 되려면 心理學·社會學·人類學 등 전공자들이 대거 참여해야 옳을 것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資料 動員이 모자라고, 面接調查 등의 메에타 없이, 무슨 統計的 處理마저 동원함이 거의 없이 각각 結論을 誘導하려니 무리가 있었음을 自認한다.

다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濟州의 物量的·可視的 改變은 너무 超速度的이므로 우리의 意識에 軌道 修正을 가할 必要를 切感하기 까닭에, 그 序說的 作業으로서 問題 提起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되풀이하거나 우리는 歷史의 非主體의 主人이 될 수는 없다. 民族主體性은 민족이 처한 歷史성과 社會성을 초월한 抽象的 論理만으로써 규명될 수 없음은 한 지역민의 主体性 定立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에게서 普遍性(universalism)도 중요하지만 이 보편성 때문에 먹혀 들어간 非主體의 歷史성과 社會성을 棄擲하기 위하여 오히려 특수성(particularism)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하다.<sup>56)</sup> 濟州의 特殊文化의 精髓는 과연 무엇이며, 그 比率는 얼마만큼

53) G. Gorer; *The Americans: A Study in National Character* 1948.

54) R.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1946.

55) K. Young의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946) 에 따르면 그 7개 側面은 ① 最初의 基礎訓練(곧 食事·睡眠·排泄 등)과 攻擊性, ② 愛情, ③ 道德과 道德的 自我의 成長, ④ 自己評價, ⑤ 技能과 知識의 習得, ⑥ 社會의 不適應 등이다.

56) 金泳謙; '主體性的 社會學的 考察: 民族主體性的 確立을 위한 一試驗, 『韓國人의 主體性』, 高麗大學校行動科學研究所, 1978, 高麗大學出版部, PP. 45 ~ 62.

인가를 파헤치기 또한 어렵다. 린튼(R. Linton)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固有한 文化的 要素를 지니고 있는 社會는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雜多한 文化라 했다.<sup>57)</sup>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성공하려면 文化型(patterns of culture)의 탐구가 多角度로 이루어져야 함과 아울러, 對比研究-예 들면 韓國本土民의 性格 및 島嶼들과의 比較考察이 客觀的·數值的으로 이뤄져야 옳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 이런 原理的 問題意識을 더 强황하게 늘어놓을 겨를이 없다. 장차의 작업을 위해서 觀點과 方法을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이다.

濟州의 改變速度가 빠름에 따라, 그 社會變動도 當爲와 實情 사이에 많은 對立·葛藤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對立 葛藤이 社會惡으로 白眼視할 수는 없다. 코서(L. A. Coser)는 社會葛藤은 積極的이고 統合的인 機能이며, 葛藤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分離要因을 제거시켜 주고 再統合시킨다고 보았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58)</sup> 序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리에게서 主体性의 確立이 참 火急하다. 主体性은 自己同一性(identity)이며, 獨立性이요, 自我完成이요, 自己自身이 自己의 主人이라는 意識이다. 自主性이요, 自己保存을 包含하는 包括的인 뜻을 主体性은 띠고 있다.<sup>59)</sup> 主体性은 能動的인 自己決定性이다. 남과는 다른 바 우리만의 집단적 성격(institutional uniqueness)이다. 自己에게만 特有한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類의 作業은 장차에도 얼마든지 所望스런 것이다.

우리는 7개의 側面에서 濟州民의 意識을 살펴 본 결과 ‘自彊·不敗의 精神’이라 요약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意識에는 그 對蹠의 意識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兩向的(ambivalent) 規定이 또한 必要함을 보아 왔다.

좁게는 濟州研究, 넓게는 韓民族研究에 이런 작업은 이바지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濟州民의 潛在的 能力을 開發함과 아울러, 濟州民의 存在樣式을 把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 作業은 계속 이어져야 하리라 믿는다. 濟州的 開發政策, 濟州的인 制度, 濟州民의 性格 構築에 역시 奇與할 것이다. 韓國人의 民族神經症을 없애야 나라가 제대로 되듯 濟州民의 神經症을 拂拭하는 데도 도움될 터이다. 램포트(Lewis Mumford)는 西洋文明을 극히 우려하면서 그 崩壞危機를 克服하는 길이 있다면 오직 自己檢討·自己理解·自己紀律·自己制御라 했는데,<sup>60)</sup> 우리로서도

57) Robert Bierstedt; *The Social Order* Mc Graw - Hill Book co., inc., 1963, P.137.

58) L.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P.21, P.31, P.80.

59) Chu Che Seung (主體性) is a comprehensive word that implies identity, independency, self-actualization, consciousness of being the master of self, autonomy, self-preservation as well as assertion in constructive sence i.e. not harmful to Chu Che Seung of the object, or rather the other subject. (韓國人의 主體性과 學生指導의 理念, 「學生研究」, 第5輯第1号, 서울大學校 學生指導研究所, 1967, P.91)

60) Lewis Mumford; *The Condition of Man*, 1944, Martin Secker and Warburg Ltd.

경청할 만하다고 본다. 主体性이 없는 近代化는 철저히 排除해야 함을 아울러 덧붙인다. ‘耽羅 精神探究’는 한결같이 ‘耽羅라는 自己存在(Selbstsein)’를 確認·定立하는 과제여야 한다.

— Summary —

### A Study of the Spirit of "Thamla"

*Hyun, Pyung Hyo and 7 others*

The Spirit of "Thamla" means the social character which the people in Jeju Island have traditionally held in common. To clarify this social character, co-operation is required between the sociological, psychological, anthropological, historical, folklore and other scientific inquirie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such a clarification be preceded by the study of the character of the Korean. But the considerable progress in it has not been made as yet. Moreover, the patterning of the Jeju culture has not been made yet, even though the study of the social character of Jeju people is the core of that on Jeju. Therefore, in such a circumstance, we cannot help realizing the limits of our study.

However, Jeju Island has undergone such rapid change in to an international tourist resort that the establishment of its subjecthood, that is, the consciousness of owners, is most urgent to maintain its steady progress. This study is to try a self-fulfilling prophecy by developing the potential of the people in Jeju Island and clarifying the mode of their existance. In other words, their institutional character.

With the goal of achieving this aim Hyun Pyung-hyo, the president of the "Thamla Research Institut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intended this study, and study was carried out in 7 field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by Kim, Jong up), the ethical and sense of value (by Kim, In je), folklore (by Hyun, Yong joon), the endemic customs (by Kang, Kyung sun), folk songs (by Kim, Young don), self-defence (by Ko, Sung joon), and culture (by Yang, Joong hae). In the course of the study a seminar was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Jeju provincial authorities in 19th of October, 1979.

There is room for further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of whether of not it is desirable that the study was carried in these 7 fields; furthermore, we admit its methological insufficienc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in all fields of research several terms are used which manifest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in Jeju Island. Those terms which are used more than five times in the study are: 'strenuous efforts,' 'invincibility,' 'strength and tenacity,' 'frugality,' 'diligence,' 'practicality,' in the order of frequency of use. The meaning of these words can be condensed into the spirit of 'strenuous efforts' and 'invincibility.' But this condensed meaning distinctly expresses only the affirmative side of those terms. The other side of the consciousness, the negative one, must not be disregarded. It can be thought that the spirit of invincibility, which is derived from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handicaps peculiar to Jeju Island, premises defeat, and that

the spirit of strenuous efforts is the will and belief which have also been cultivated by the barren environment and the life of the hard past.

In order that Jeju Island can make continuous progress forever, the expansion of this character peculiar to the people in Jeju Island is required. This character means the consciousness of the inhabitants of their unique ways of thought. The establishment of its consciousness demands the understanding of what this character is. These projects are believed to be worth continued study. We are sure that this will make a contribution not only to establishing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Jeju Island, the system, and the character, but also to a study on the people of Korea as well.